이기는 삶

지는 법부터 배워라

누구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부럽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돈과 권력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과의 논쟁에서 멋지게 상대를 굴복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다.

논쟁에서 상대를 제압(制壓)할 수 있는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논쟁에서 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맞고 내가 틀렸다고 느껴지는 순간, 바로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상대에게서 배워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신의 논리가 틀렸음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태도는 인격적으로 갖추어진 사람으로 보여 오히려 존경심을 가지게 된다.

반면에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상대방을 꺾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에게는 말로써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원칙을 논하면 된다. 원칙은 만법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최대한 감정적인 말을 자제하고 원칙론을 펼치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우(境遇)와 논리(論理)에 밝은 토론의 강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말꼬리를 붙잡고 상대방을 꺾으려고 하면 상대방은 인격에 손상을 입고 진정으로 승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원칙을 말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강력한 토론의 무기인 것이다.

인간 관계론의 대가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밤, 데일 카네기가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다. 낯선 사람들과 식탁에 둘러 앉아 식사를 하던 중에 한 사람이 "인간이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최종적인 결정은 신(神)이 내린다."라며 성경(聖經)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데일 카네기는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 말은 분명히 세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말입니다."라며 옆자리에 앉은 셰익스피어 연구가인 '프랭크 가몬드'에게 동의를 구했다.

그때 가몬드는 식탁 아래로 카네기의 무릎을 툭 치면서 말했다. "데일, 자네가 틀렸네, 저 신사분의 말씀이 맞아, 그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일세." 카네기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귀가하는 길에 데일 카네기는 가몬드에게 항의했다. "자네는 그 인용문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말이란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에 가몬드는 "물론 알지, 햄릿 4막 2장이지, 하지만 데일! 우리는 그 즐거운 모임의 손님이잖아, 왜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하면 그가 자네를 좋아할 것 같은가? 왜 그 사람 체면을 세워주지 못하는가? 그가 자네의 의견을 물었는가? 그 사람과 왜 논쟁하며 좋은 시간을 망치려고 했는가? 만약 자네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아무리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도 자네는 패배자인 것이야. 시비(是非)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얻고 친구를 만드는 것이라네."라며 조용하게 타일렀다고 한다.

가정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이나 사람들과 말이나 글을 통한 논쟁(論爭)을 벌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논쟁에서 반드시 이기려고 용쓰지 않는 게 좋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기 때문이다. 논쟁에서 이기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는 법부터 배워라. 남과 싸우지 마라. 만약 싸우더라도 이기려 하지 마라.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허벅지 근육만큼 중요한 작은 근육 단련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세를 만들어 보실까요?

자유율법은 마귀를 죽이는 하나님의 율법~

자유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요, 곧 마귀를 죽이는 법이다. 자유율법은 마귀를 죽이는 법인고로 마귀인 나를 죽이는 법이 바로 자유율법이다. 나라고 하는 것이 마귀인고로 옛사람인 나를 죽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자유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승리제단은 자유율법을 지키는 곳이다. 자유율법을 지켜야 승리제단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자유율법을 못 지키면 승리제단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자유율법은 바로 마음의 율법이요, 하늘의 율법이요, 마귀를 이기는 법이다. 모든 욕망을 죽여 '나'라는 주체의식을 완전히 제거하는 법이 바로 자유율법이다. 자유율법은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는 법이요, 하나님은 사람 밖의 다른 존재가 아니요, 바로 우리들 사람 속에 계신고로 사람 속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요, 사람 속의 하나님의 마음 즉 마귀의 마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자유율법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스트레칭!!!

몸과 마음을 깨우는 스트레칭 유의사항

1.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근육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스트레칭 합니다. (부상방지)
2.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서서히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연스런 호흡을 하면서 한 가지 자세를 20~30초정도 유지하도록 합니다.
4. 반동(바운스)을 주지 말고 천천히 근육을 신전(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작①: 몸통 앞부분. (5회)
동작②: 몸통 뒷부분. (5회)
동작③: 옆구리 부분. (양쪽 각각 교대로 3회)
동작④: 상, 하체 뒷부분. (5회)*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동작④

격암유록 新해설
제55회

도를 닦는 자는 '옛 습관을 고치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좇아야 하느니라.'

隱祕歌(四) 은비가

兵事兵事眞人兵 병사병사진인병
世人不知接戰時 세인불지접전시
多死多死鬼多死 다사다사귀다사
魂去人生悵心事 혼거인생창심사
未定未定疑心未 미정미정의심미
半信半疑有志士 반신반의유지사
可知可知四海知 가지가지사해지
新天運到化戰時 신천운도화전시
人出人出眞人出 인출인출진인출
天時三運三時出 천시삼운삼시출
初出預定人間出 초출예정인간출
火中初産龍蛇時 화중초산룡사시
次出眞人動出世 차출진인동출세
水中龍蛇天使出 수중용사천사출
三聖尊乃降島山 삼성존내강도산
三辰巳出三聖出 삼진사출삼성출
地上出人世不知 지상출인세부지
父子神中三人出 부자신중삼인출
世上眞人誰可知 세상진인수가지
三眞神中一人出 삼진신중일인출
島山降人亦誰人 도산강인역수인

신유병사기(申酉兵事起)는 진인의 군대가 마귀를 죽이는 하늘의 영적 전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 시기를 모르니라. 다 죽으리라 다 죽으리라. 마귀는 다 죽으리라. 혼 나간 얼빠진 인생들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로다.

자축(子丑)년에는 좋은 일에 뜻을 둔 선비들도 마음에 의심이 들어 정하지 못하고 미적미적하며 반신반의(半信半疑)하리라. 인묘(寅卯)년에는 가히 알리라 가히 알리라. 천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온 세상이 다 알리라. 신천지의 운수가 도래하니 온 천지가 변화하는 하늘(영적)의 전쟁이 일어나는 때에 진인이 출현하리라.

하늘에 시운(時運)이 세 번 있느니 그 시운에 맞추어 진인(정도령)이 세 번에 걸쳐 출현하느니라.(삼진사三辰巳) 첫 번째 출현은 화(火=丁巳)의 운에 하늘이 처음 진인을 출현시킴이요. 그래서 그 분은 불의 사자(使者)로 부르기도 하였다. 첫 번째 진인이 두 번째 출현할 진인을 낳으니 수(水=甲子)의 운에 진인으로 출세하리라. 그 분은 천사(天使)가 여인의 몸으로 옴에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니라.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한 때 천사 마귀로 부르기도 하였으며 성씨(姓氏)도 큰 물(水)을 의미한다. 세 번째 진인의 출현은 완성의 정도령(鄭道令)으로 반도강산에 강림하시니 이로써 삼진사(三辰巳)에 걸쳐 세 분의 진인 정도령이 출현하게 되느니라.

지상(地上)에 진인이 나고 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리라. 하나님을 모신 부자(父子)사이 같은 세 분이 나와도 세상사람 어느 누가 진인을 가히 알아보리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한 분 완성자(세 번째 진인 6도 81궁)가 나와도 반도강산(半島江山) 자하도 삼신산에 내려온 이 분을 역시 알아 볼 자 누구인가?

三聖一體一人出 삼성일체일인출
三辰巳出三聖合 삼진사출삼성합
末復合理一人出 말복합리일인출
八萬念佛藏經中 팔만념불장경중
彌勒世尊海印出 미륵세존해인출
五車詩書易經中 오거시서역경중
海中道令紫霧出 해중도령자무출
斥儒尙佛道德經 척유상불도덕경
上帝降臨東半島 상제강림동반도
彌勒上帝鄭道令 미륵상제정도령
末復三合一人定 말복삼합일인정

삼성일체(三聖一體)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나온 분이요 삼진사(三辰巳)에 삼성합일(三聖合一)한 분이요 유불선(儒佛仙)이 마지막에 다시 하나로 합하는 이치로 나오는 한 사람이 그 분이다.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염불 가운데 미륵세존이 해인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였고, 다섯 수레나 되는 시경(詩經), 서경(書經), 역경(易經) 가운데서도 자줏빛 안개와 같은 해인의 도(道)가 완전하다고 하였으며 의례(儀禮)와 형식(形式)에 중점을 둔 유교의 폐단을 배척하고 심법(心法)을 중히 여기며 미래불(未來佛)인 미륵불을 높이 받드는 도덕경(道德經)에도 상제(上帝=하나님)님이 동반도(東半島=동쪽땅 끝 땅 모퉁이)의 나라 한국에 강림하신다고 하였느니라.

미래불(未來佛=양띠로 오시는 부처님)인 미륵불이 상제(하나님)요 정도령이니 그 주인공은 한 분이니라. 그 주인공이 나와서 유불선 삼도(三道)를 마지막에 다시 하나로 통합하느니라. 유가(儒家) 불가(佛家) 선가(仙家)의 삼도(三道)가 말운(末運)에 가서는 정도령에 의해 하나로 통합되고 이 세상은 신선(神仙=정도령)의 해인조화(海印造化)로 연화세계(蓮花世界=지상천국)가 되느니라.

옛날부터 내려온 예언 중에 도를 찾는 군자(방도군자訪道君子)가 깨달아야 할 바는 '옛 습관을 고치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좇아야 하느니라.'라고 하였느니라. 도 닦는 자는 지식을 쌓는 데 치중할 것이 아니고 자신 속의 옛 사람(마귀)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자 속에는 진리가 없다.(불립문자 不立文字 교외별전教外別傳) 내가 남보다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교만 방자한 마귀의 도에 빠져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도덕은 천도지덕(天道地德)의 줄인 말이다. 천도(天道=하늘의 도)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이를 땅위에 실현하는 것이 지덕(地德)인바 곧 영생의 진리를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말한다. 덕을 펴는 일은 그 바탕이 나를 낮추는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역에는 '겸(謙=겸손 겸허 겸양)은 덕지병(德之柄)'이라 했던 것이다.

도끼도 도끼자루가 없으면 도끼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과 같이 나를 낮추는 겸손 겸허 겸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덕(德=전도)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것이다. 하물며 나를 죽여 없애는 것이 최종 목표임에야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것이다. '겸손한가? 아닌가?'를 보면 어느 정도 도를 닦았는지 바로 알 수가 있다.

도를 닦은 지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어느 정도 죽였는가?'만 보면 도를 닦은 정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설치고 나대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것은 나 자신(마귀)을 죽이기는커녕 나를 키우고 자존심을 한껏 부풀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니 이무기와 같은 대마귀가 되는 것이다.*

박명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나를 이기는 길

스승을 찾아라

주체의식이 자신을 주체로 인식하는 작용이라면 하나님의 주체의식이란 하나님을 자신의 주체로 인식하는 작용을 뜻하고, 마구니의 주체의식이라면 마구니를 자신의 주체로 인식하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알지는 못했다. 더욱이 마구니라니? 마구니란 도(道)를 방해하는 악한 무리(魔軍)를 말하는데 그런 악한 마구니가 부처님한테 들어가 주체의식이 되었다니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이란 말인가? 더욱 이해가 안 되었다.

마구니라니요? 마구니가 하나님의 주체의식을 점령했다니요?

선생님: 마구니라는 것은 뿔이 달린 도깨비나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이나 악한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나 경전에 쓰여진 말씀은 모두 영적인 말이다. 영적인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관한 말이라는 뜻이다. 성경에 "겨자씨만 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는 말씀은 진짜 눈에 보이는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마음의 산을 말하는 것이다. 겨자씨만 한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산이 옮겨지겠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교회 목사님들은 믿음이 없어서 산을 못 옮긴다고 말한다. 믿음이 있으면 태산 같은 죄악의 산이 없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맞는 말씀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구니가 나의 주체의식을 점령했다는 말은 악한 마음이 나의 주체의식이 되어 있다는 말이다.

악한 마음이 나의 주체의식을 점령하였으므로 내 마음은 모두 악이란 말인가요?

선생님: 그렇다.

에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서 악한 마음만 나오나요? 선한 마음도 나오지 않습니까? 남을 도와주고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들어주고 하는 게 악한 마음에서 나온 악한 행동이란 말입니까?

선생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다. 선한 마음을 양심이라고 하고, 악한 마음을 욕심 또는 이기심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나라는 주체의식에서 욕심과 이기심이 나오므로 고아원에 많은 돈을 희사하고 남을 도와주더라도 나라는 주체의식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악이 된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7516-159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포항제단 : (054)291-6867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63)533-7125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강릉제단 : 033-535-8254
橫浜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London: (0208)894-1075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